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41호

[미투 이후의 시간은 이전과 다르다] 체육계에도 변화를

### ‘스포츠 미투’의 흔적 찾기

함은주 스포츠인권 활동가

경주 17개 사회단체 6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

### 경주시민사회단체 인권침해 가해자 체육회장 규탄 목소리 높여

강시일 대구일보 기자

15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서 진행

### 평화를 위한 청년들의 발걸음 ‘2023 지구런 : 평화의 발자국 in 부산’ 개최

장수현 부산제일경제 기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 스포츠윤리센터, 목포경기장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안홍석 연합뉴스 기자

인권위,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 방문

### '모두를 위한 스포츠'...인권위, 전국체전 인권 점검 나서

이승령 서울경제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스포츠 미투’의 흔적 찾기

이번엔 다를 거야, 체육계를 변화시킬 마지막 기회가 왔다

2019년 1월, 소치 올림픽과 평창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세계 최정상급의 빙상 종목 선수가 오랜 시간 동안 코치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려왔음을 폭로했다. ‘스포츠 미투’의 상징적 사건이자 변화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여론은 체육계의 자성과 혁신을 촉구하며 정부와 체육계를 압박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관심과 지지였다.

사실 2007년 우리은행 농구팀 감독의 선수 성폭행 사건, 2018년 체조협회 임원의 국가대표 상비군 지도자 성추행 사건 등이 크게 보도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잠시 뉴스만 되었을 뿐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매번 유사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성폭력 사건 전수조사 및 가해자 징계 강화 정도의 대책만 내놓을 뿐이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과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시적이었고,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그 대안의 이행과 결과를 지켜보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못하였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응원하고 지지했던, 올림픽에서 선전하며 기쁨과 환희를 선사한 국가대표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폭력 및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 빙상연맹과 같은 종목단체 및 대한체육회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는커녕 은폐해 왔다는 점에 분노했다.

체육계 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시민단체들도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큰 목소리를 냈다.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 국회도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체육계를 규탄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특히 이런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의 위계 문화와 성적 지상주의, 파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성폭력과 같은 스포츠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여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2019년 2월, 문체부 주도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체육, 인권, 장애인, 여성,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위원회였다.

이제껏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고 지적해 온 선수 출신의 체육인이나 스포츠 전문가는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이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전의 충격적인 체육계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와 무게를 가진 위원회였다.

그래서 희망을 품었다. 처음이었다. 체육계 혁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열망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이번만큼은 체육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있고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기회가 다시 있을까 싶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스포츠계 혁신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었나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1년간 17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성적과 성과 중심의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지향하는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을 체육인 중심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계의 구조 혁신을 목표로 총 7차에 이르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체육계는 이러한 권고안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다. 대중과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잦아들자, 이제는 체육계가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다. 체육계는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체육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비난했고, 체육계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했다. 심지어 직접 가해자만 처벌을 받았을 뿐, 선수를 보호하지 못한 체육 관련 기관의 어떠한 장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를 통한 체육계의 집합적 목소리는 큰 힘이 있었다. ‘체육인’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혁신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정부를 침묵하게 했고, 권고안 이행을 멈추게 만들었다.

급기야 현 윤석열 정부는 성적 지상주의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이전 정부의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가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방향을 틀었다. 스포츠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해 엘리트 체육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체육인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2023년 업무계획을 세웠다. 선수를 도구화하고, 성폭력과 같은 반복적 인권침해를 만드는 구조적 원인인 성적 및 성과 중심의 체육정책을 지향한다는 것과 다르다.

특히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는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에 대한 것이었다.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와 예방시스템을 이행할 것과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기구의 설립'을 권고한 것이다. 1차 권고를 위해서 스포츠 성폭력 사례의 구조적 환경 분석, 진단과 기존의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대책을 분석, 평가하여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행점검에서도, 신설될 스포츠인권 기구가 실효성을 갖도록 권고의 취지를 잘 살려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마저도 체육계의 눈치를 보며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당초 권고 취지와 구성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스포츠인권 기구 설립을 느리게 추진하였다. 그러다 2020년 7월에 고 최속현 선수 사망 사건(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속현 선수의 사망 관련하여, 선수가 감독과 팀 선배, 팀 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겪었음이 알려졌다) 이후 이 사건은 체육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이 보도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스포츠인권 기구를 졸속 설립한다.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거라고 하지만, 스포츠인권 기구 설립이라는 당위만 있을 뿐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구였다. 그렇게 조사권도, 직접 징계권도 없는 '스포츠윤리센터'란 이름뿐인 스포츠인권 기구만 남았다. 2019년 스포츠 미투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꿈꿨지만, 말 그대로 꿈이 되었다. 내가 너무 순진하였다.

체육계 시민운동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돌아보았을 때 2019년의 스포츠 미투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출범한 '스포츠 혁신위원회' 활동이 스포츠 정책의 역사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스포츠 미투가 남긴 큰 흔적이다.

그 동안 체육계에서 폭력과 성폭력 사건, 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체육계 '내부'에서 자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방식을 택해 왔다. 체육계의 특수성이 있고, 체육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당사자주의 관점이었다. 하지만 체육계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보다는,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은폐하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 온정주의가 발휘된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를 반복했다.

이런 식의 대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통해 체육계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체육계를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적어도 시작은 그랬다.

결과적으로 스포츠 혁신은 실패했다. 오히려 스포츠 혁신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케케묵고 시대에 뒤떨어진 체육계를 바꾸고 고쳐서 새롭게 하고 싶었고, 이번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품었다. 인습이 오래된 만큼 굳고 두터워져 있다는 것을, 그땐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그것을 벗겨낼 만큼의 역량이 우리에게 부족했다.

하지만,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와 활동이 스포츠 혁신 의제를 인권, 장애, 법조, 여성계와 공유하고 논의하고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씨앗을 보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를 통해 스포츠 관련 시민운동의 대상을 확장하고, 연대의 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미투 운동, 그리고 이어진 고 최속현 선수 사건 등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인권단체, 여성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같은 공익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활동은 체육계 시민운동의 표지석이면서, 일종의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편으로,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마지막은 초라하고 아쉬웠던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체육계 시민단체의 열악한 현실과 역량의 한계를 절감했다.

스포츠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스포츠 혁신이 필요하다'는 당위의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공감을 얻고 연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체육계 시민운동이 꾸준히 잘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한 토대와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인적 자원과 학문, 이론적 토대, 연대 등 네트워크 자원이 필요하다.

나는 운동(스포츠)을 매개로 연대하여 운동(무브먼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좌절도 하고 의심도 하지만, 스포츠 혁신의 길을 향해 우리는 쉬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필자 소개] 함은주. 하키선수 출신으로 운동(sport)하는 운동가(activist)를 지향한다.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했으며, 문화연대 집행위원을 맡아 스포츠 문화정책, 스포츠인권, 성평등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ildaro.com/9741>

# 경주시민사회단체 인권침해 가해자 체육회장 규탄 목소리 높여

경주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시체육회장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17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단을 관리해야 할 체육회장이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등장해 체육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체육회장이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압박하고, 일부 여성선수들에게는 성추행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는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또 “경주시 체육계의 뿌리깊은 폭력문화는 고 최숙현 선수 문제로 전국적인 회오리를 일으켜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한 것은 경주시체육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경주시체육회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주시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위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위탁을 철회하고 운영을 책임질 것과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정례화 하고, 피해 선수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인권침해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주시는 이에 앞서 경주시 소속 선수들로부터 경주시체육회장의 성폭력 및 가혹행위 여부확인서를 제출받아 상담을 진행한 결과 경주경찰서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수사의뢰했다. 이어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사건을 접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평화를 위한 청년들의 발걸음 '2023 지구런 : 평화의 발자국 in 부산' 개최

부산·경남 지역 청년 1000여 명이 한곳에 모여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가 주최하고 위아“런”이 주관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2023 지구런 : 평화의 발자국 in 부산(이하 지구런)’ 마라톤 행사가 지난 15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개최됐다.

마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된 스포츠로, 아테네까지 뛰어가 전쟁의 승리를 알리고 죽은 전령을 기리는 뜻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번 지구런은 지구촌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발자국을 남기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평화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부산 외에도 서울·전주·파주 등 지역별 피스 포인트(PEACE POINT) 4곳에서 버추얼 레이스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잇고 아름다운 평화 연대를 이루고자 지구 둘레인 40,120km를 1인당 최소 4km씩 달리는 것을 기준, 피스레이서(마라톤 참가자)들의 발자국으로 채워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최 측은 분단과 긴장의 유산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문화, 정치, 종교적 갈등을 넘어 자유, 평화, 인권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지속되기를 염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은 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고 질곡의 근현대사를 겪었던 만큼 평화의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이는 이번 마라톤 행사뿐만 아니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평화 부스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됐다. 그중 평화 부스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피스레이서는 “다양한 부스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됐고 평화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 됐다”며 “오늘 피스레이서로서의 작은 발걸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장은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단순한 마라톤 행사를 넘어 인류의 평화를 위해 모두가 평화의 발자국을 남기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재 위아원 부산경남서부지역연합회장은 “6.25 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이 모여들었던 부산에서 오늘 평화를 위해 많은 청년이 모였다”며 “낯설다고 할지라도 오늘 함께 마라톤을 뛴 것처럼 먼저 다가가고 도와주며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모 위아원 부산경남동부지역연합회장은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뛴다면, 진정한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위아“런”의 많은 청년이 내디딘 평화의 발자국이 온 세상에 닿고 더 많은 사람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겠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개회사, 레이스, 폐회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레이스는 5km와 10km, 5km 걷기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한편 국외에서도 위아“런” 러닝크루들이 이달 말까지 버추얼 레이스 형식으로 평화의 발걸음에 동참한다.

평화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곳은 아시아 9개국(일본, 몽골, 스리랑카,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카자흐스탄, 튀르키예)과 유럽 7개국(러시아,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주 3개국(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아프리카 9개국(카메룬,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콩고, 잠비아, 에티오피아),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등 총 30개국으로 총 2만 명의 러닝크루들이 함께 달릴 예정이다.



## [전국체전] 스포츠윤리센터, 목포경기장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스포츠윤리센터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및 홍보 활동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윤리센터는 대회 기간인 13~19일 대회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찾아가는 상담 창구'와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상담 창구에서는 인권침해나 각종 비리 신고를 받으며 상담을 진행한다. 피해자에게는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상담 창구는 목포종합경기장 2층에 있다.

홍보부스 방문자는 SNS 구독, OX 퀴즈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 '모두를 위한 스포츠'...인권위, 전국체전 인권 점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인권위는 오는 13일부터 목포, 여수, 순천 등 전라남도 일대에서 개최되는 대회 현장을 방문하고 총 9개 종목에 대한 선수 인권상황 및 경기장 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대한체육회 및 협회 관계자 등의 인권의식 및 시설, 환경 개선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회의 인권 친화적 개최와 진행을 위해 대한체육회도 팔을 걷어 부쳤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기간 중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에 인권상담실(스포츠윤리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도민 인권상담센터(전라남도)를 운영하고 '스포츠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이날 스포츠 인권 관련 홍보 행사도 진행한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인천시체육회, '스포츠 인권지킴이' 최우수상 쾌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012010001975>

대한체육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에서 개최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645>

韓 당구연맹, 스포츠 인권의 날 3주년 인권 경영 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6028387>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3년 하반기 시군장애인체육회 워크숍 개최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322>

사우디 이적했다고 야유... 헨더슨, 英팬들 향해 "솔직히 실망스럽다"

<https://www.footballi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416>

목포 전국체전 현장에서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받는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3\\_0002481816&cID=10501&pID=105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3_0002481816&cID=10501&pID=10500)

IOC, '우크라 조직 무단 통합' 러 올림픽위 자격정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1200&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1200&plink=ORI&cooper=NAVER)

당구연맹, '인권 존중 다짐 캠페인'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https://www.osen.co.kr/article/G1112202257>

부산시한마음스포츠센터, 문체부 '2023 최우수장애인체육시설' 선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6\\_0002483504&cID=10811&pID=108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6_0002483504&cID=10811&pID=10800)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